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 지역소식 > 우리동네소식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열려

김완근 기자 승인 2019.03.04 14:10

담양에서도 '3.18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당시 담양시장에서 만세운동 시작, 곳곳 퍼져





담양군은 지난 1일 오전 10시 담양군여성회관 앞 다목적광장에서 주요기관, 사회단체장과 보훈가족, 공무원, 학생,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담양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담양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항일 운동이 번져가던 당시에 3월 18일 담양시장에서 시작돼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다.

이날 기념행사는 현충탑과 고하 송진우 선생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100년전 3.18 담양만세운동을 재현한 만세행사, 담양 독립유공자 위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담양의 농민, 상인, 기업인, 종교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릴레이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전남도립국악단과 함께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되새기는 퍼포먼스를 펼쳐 교육적 효과와 함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했다.

최형식 군수는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선조들의 자긍심 넘치는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새로운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담양의 시대정신으로 삼아 담양 발전의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완근 기자

김완근 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